

#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Input and Child's Early Language Development :  
Verbs and Nouns

이혜련(Hae-Ryoun Lee)<sup>1)</sup>

이귀옥(Kwee-Ock Lee)<sup>2)</sup>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spects of caregiver's input relating to the early development of nouns and verbs. Subjects were 34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ji, China. At 1 year of age each child's spontaneous speech during interaction with his/her caregiver was videotaped for about 30 minutes. The children's spontaneous utterances were transcribed and coded on the lexical level(nouns and verbs) and the pragmatic level. Children's speech was recorded, transcribed and coded again at 2 years of ag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used more verbs when they were older;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s in mother's pragmatic utterances but when they were two-years-old children used more action-oriented utterances and object-described utterances. Mother's input was related to children's pragmatic utterances.

**Key Words** : 화용론적 분석(pragmatics analysis);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caregiver's verbal input), 아동의 초기언어발달(children's early language development).

## I. 서론

대부분의 아동들이 생후 12개월경에 한 단어 발화를 시작하여 2세 이후부터는 어휘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2세경에

200-300개의 어휘를 사용하며, 3세에는 1,000개, 4세에는 1,500개, 그리고 5세에는 2,000-2,500개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김재은, 1984). 영어권 유아들은 우리나라 유아들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2세경에는 약 200개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

<sup>1)</sup>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sup>2)</sup>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e-Ryoun Lee, Child and Family Study,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E-mail : 980913@hanmail.net

고, 6세 무렵에는 10,000개의 어휘를 사용한다고 한다. 즉, 2세 이후에 놀라운 어휘증가를 보여 2-6세 사이에 하루 평균 5개의 새로운 어휘를 획득한다는 것이다(Anglin, 1993). 한국아동들과 영어권 아동들을 비교했을 때 그 어휘 수에서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동들의 초기 언어발달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편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초기 발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품사가 대체로 명사이고 동사는 좀더 후에 나타나므로 동사의 사용은 언어발달이 좀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품사사용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발달과정은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아동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초기 언어발달에서 남아보다 여아들이 언어발달이 다소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차에 관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Brown(1983)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발달이 1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휘나 발음에 있어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발달된다고 한다(김경중·최인숙, 1989). Caselli, Casadio, 그리고 Bates(2001)의 연구에서도 영어권 영아들과 이탈리아 영아들의 어휘발달을 살펴본 결과 남녀간의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언어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도 있다. 언어발달의 초기에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조금 빠르지만 곧 남아들이 여아들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3세경이 되면 문장의 길이, 사용 어휘 수 등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 간에 성차가 없어진다고 한다(최보가 공저, 2000). 그러므로 아동들의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들의 초기 언어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 한 가지는 양육자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으로서 보편적으로 아동들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습득한다는 입장이다(Genter, 1982). 이 주장에 따르면 언어마다 그 구조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언어의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동사보다 명사를 일찍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사로 코딩되는 대상(object)의 개념이 인지적으로 더 쉽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로 코딩되는 행위보다 더 쉽게 습득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초기 어휘발달단계는 보편적인 인지적, 생물학적 특성이므로 환경적인 특성인 언어적 입력은 초기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Genter, 1982; Caselli, Bates, Casadio, Fenson, Fenson, Samderl & Weir, 1995).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최근에는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초기 어휘발달에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Choi & Gopnik, 1995; Tardif, 1996; de Leon, 1997). 아동의 초기어휘발달이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장유경·이근영·곽금주·성현란, 2003; Bowerman & Choi, 1994; Choi & Gopnik, 1995; Choi, 2000)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에 있어서 주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양육자 혹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언어적 입력의 양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장유경 등, 2003; 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에서 양육자가 아동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동의 어휘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Barret, harris 와 Chasin(1992)은 아동의 첫 10단어가 아동의 어머니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Pine, Lieven, 그리고 Rowland(197)는 어머니 언어의 형식적 특성

이 아동의 초기 어휘에서 일반명사의 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글없는 책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장유경 등(2003)의 연구에서도 2세 미만 영아들의 어휘발달에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명사와 동사와 같은 품사사용에 있어서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어휘발달과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아동들을 비교한 Choi와 Gopnik(1995)에서 한국아동들은 한 단어 시기에 명사와 동사를 비슷한 정도로 습득하고, 중국 아동들은 명사보다 동사를 더 많이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빨리 습득하는 것이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Genter(1982) 등의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hoi(2000)는 장난감 놀이상황에서 한국 어머니들과 영어권 어머니들의 명사와 동사 사용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 어머니들이 영어권 어머니들보다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rdif, Shatz 그리고 Naigles(1997)는 영어, 중국어, 이탈리아어의 세 언어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자발발화에서 명사와 동사의 사용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어권 양육자들이 영어나 이탈리아권 양육자들보다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초기 어휘발달에 있어서 언어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명사와 동사 습득에 있어서 언어적 투입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승복·장유경(1999), Au, Dapretto, & Song(1994)

등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이 동사를 많이 강조하고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이 동사보다 명사를 더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에 관한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른 언어권 어머니들만을 비교하거나,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은 직접 관찰하고 아동의 발화는 부모용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실제로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를 모두 분석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나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화와 어머니의 발화를 모두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자발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관찰하여 모자의 발화를 모두 분석하여 발달적 과정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어휘량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동시에 의사소통 기능도 점차적으로 향상된다. 아동들은 생후 8-10개월 정도 되면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고 인사하기, 가리키기, 응식하기, 주기와 같은 의도적인 발화나 몸짓을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 이전기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위들은 구어(verbal) 산출을 위한 선수 기술로서의 역할을 한다(Bates, Camaioni, & Volterra, 1975). 이러한 화용발달은 생후 첫해에 점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기 중반까지 계속된다. Ninio와 Snow(1996)은 첫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자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성(intentionality), 둘째,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도를 형성하는 의사소통의도의 조절능력, 셋째, 서로 다른 의사소통의도들의 범위를 조절하는 능력, 넷째, 자신의 의도르 관습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의 네가지 사회-인지적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구어적 의사소통이 점

차 세련되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언어의 사용이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품사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러한 품사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1세 후반 정도 되면 의사소통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므로 명사와 동사와 관련된 화용론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품사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 품사들이 의사소통기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즉 명사와 동사 품사 습득의 발달과정이 동사, 명사와 관련된 화용적 기능의 발달과정과 유사한지, 그리고 특정 품사의 언어적 입력이 강조된다면, 그러한 언어적 입력이 화용적 기능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명사와 동사 습득에 관한 명확한 발달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 명사, 동사와 관련된 화용론적 분석은 대상지향과 행위지향 발화의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Choi, Gopnik, 1995; Choi, 2000). 화용론적 분석은 앞서 설명했듯이 의사소통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한 발화 전체를 한단위로 보고, 한 발화에 명사나 동사의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그 발화가 행위나 대상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즉 대상지향 발화는 그 발화내의 동사나 명사수에 관계없이 그 발화의 의도가 어떤 대상을 명명하거나(대상명명), 어떤 대상을 지시하거나(대상지시), 어떤 대상에 관한 질문(대상질문)인 것이다. 행위지향발화도 발화내의 동사나 명사수에 관계없이, 의사소통 의도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거나(행위요구), 어떤 행위에 관한 설명이거나(행위묘사), 어떤 행위에 관한 질문(행위질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화용론적 발화가 명사와 동사습득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즉 대상지향발화는 명사습득을, 행위지향발화는 동사습득을 발달시킨다(Choi &

Gopnik, 1995; Tardif 등, 1997). 그러므로 단순히 품사의 사용보다 의사소통이라는 좀더 발달된 언어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품사사용과 의사소통의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의 특정 품사의 입력이 화용적으로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어휘론적 분석과 명사와 동사에 관련된 화용론적 분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이주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데 특히 조선족 자치주인 연길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가정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제2국어로 습득하는 이중언어환경이다. 최근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이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들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귀옥 · 이혜련, 2004; 2005). 그러나 중국 조선족 아동들의 언어발달과정에서 동사와 명사 습득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러한 품사습득과 언어적 입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사와 명사 습득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동사와 명사 습득에 있어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동사와 명사 의 품사습득과 동사와 명사관련 화용론적 접근에 따라 행위지향과 대상지향의 두가지 화용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발달에 따른 차이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아동의 언어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동사와 명사의 품사습득과 화용론적 습득에 있어서 발달적 차이(연령별, 성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동사와 명사의 품사습득과 화용론적 습득에 있어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아동들의 언어발달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호작용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아동과 주양육자의 자발발화를 전사하였다. 먼저 관찰 장소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장난감을 배치하였다. 장난감은 아동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것으로서 유선 전화기 1대, 무선 전화기 1대, 아기 인형, 우유 병, 비행기 1대, 자동차2대, 동물 시리즈(동물 2마리, 공룡 1마리), 호랑이 인형, 소꿉놀이(가스렌지, 접시, 컵, 포크, 숟가락, 주전자, 냄비, 프라이팬) 등을 준비하였다. 아동과 어머니가 유치원에 방문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떠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 후,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언어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단답형 답을 유도하는 질문보다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점을 어머니에게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녹화하였고 녹화 후 바로 전사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조선족 1세 아동 16명(평균연령 : 20.43개월, 범위 : 18-22개월)과 2세 아동 17명(평균연령 : 29.47개월 범위 : 24-35개월)의 총 34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길의 조선족은 개인이나 사회가 공적, 문화적,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두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수평적 이중언어(horizontal bilingualism)를 사용하는 체계에 속해 있는데, 중국의 소수 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어 안정되고 행복한 이중 언어생활을 누리고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지키고 있는 이상적인 이중문화-이중언어(bicultural-bilingual) 환경으로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다(박영순, 1990). 이처럼 수평적인 이중언어체계에 있는 연길의 조선족 아동들은 가정과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제 1언어가 한국어인 이중언어 아동들이므로 한국어에 매우 능숙한 아동들이다.

### 2. 연구절차

유치원의 독립된 공간에서 동일한 장난감 세팅 하에 약 30분 동안 각 아동과 주양육자의 상

### 3. 자료분석

먼저,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 중 초기 약 5분은 제외하고 그 후 발화부터 아동의 100발화에 해당하는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휘론적 분석을 위하여 Choi(2000)의 어휘론적 분류에 따라 발화에 포함된 동사와 명사를 분류하였다. 명사에는 일반명사, 추상명사,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등 대명사와 의성어를 제외한 모든 명사들이 포함되었고 엄마 아빠와 같은 명사는 호칭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하고 문장의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예; 엄마가 밥해)는 명사에 포함하였다. 동사에는 주동사, 혼합동사(예; 달려간다) 등이 포함되었고, 행위를 언급하는 행위동사와 상태를 언급하는 상태동사(예; 이쁘다, 멋있다, 생각한다, 안다)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화용론적 분석을 위해 한 문장을 한 발화로 취급하여 한 발화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를 대상지향, 행위지향 등의 두 가지 의사소통유형으로 분류하는 화용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Choi, 2000; Choi & Gopnik, 1995). 대상지향 발화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발화로서 대상의 이름을 명명하는 발화인 대상명명(예; 이건 토끼야),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발화는 대상질문(이게 뭐야),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바라보도록 지시하는 발화는 대상지시(예 : 토끼를 봐), 그리고 대상의 특성을 묘사하는 발화는 대상묘사(예; 토끼 귀가 길어)로 분류하였다. 행위지향발화는 아동 혹은 양육자가 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는 발화는 행위묘사(예; 통에 넣어), 어떤 행위에 대해 질문하는 발화는 행위질문(예; 뭐하고 있어?),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발화는 행위요구(예; 그 안에 넣어)로 분류하였다. 각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에 대해 명사와 동사의 어휘론적 분석과 화용론적 분석을 실시한 후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발화유형과 아동의 발화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먼저, 어머니와 아동의 동사와 명사발화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품사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경우 1세

<표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품사 발화의 차이검증

품 사	1세		2세		t 값	
	M	SD	M	SD		
어머니	동사	56.56	42.27	54.12	18.46	.04
	명사	65.06	32.12	65.53	27.32	.00
아 동	동사	6.19	5.23	15.53	11.07	9.40*
	명사	30.13	14.06	38.06	16.36	2.22

\* $p < .05$

나 2세 모두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지만, 동사나 명사 사용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동사 :  $t = .04, p > .05$ , 명사 :  $t = .00, p > .05$ )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경우에는 1, 2세 아동 모두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명사사용에 있어서는 연령차( $t = 2.22, p > .05$ )가 유의하지 않았고, 동사사용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 $t = 9.40, p < .05$ )가 유의하게 나타나 1세보다 2세 아동들이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보다 동사가 발달적으로 더 늦게 나타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1세 아동들보다 2세 아동들이 동사사용이 더 빈번한 것은 연령에 따른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발화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명사와 동사를 유사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과 어머니의 품사발화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품사 사용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동사 :  $t = .99, p > .05$ , 명사 :  $t = .29, p > .05$ )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동사와 명사 사용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동사 :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동의 품사 발화 차이검증

품 사	여아		남아		t 값	
	M	SD	M	SD		
어머니	동사	49.63	17.02	60.65	41.04	.99
	명사	62.44	18.82	68.00	36.96	.29
아 동	동사	11.88	11.31	10.18	8.47	.24
	명사	30.63	15.83	37.59	15.00	1.68

$t=.24, p>.05$ , 명사 :  $t=1.68, p>.05$ )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나 아동의 동사와 명사 사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어머니의 화용발화유형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 <표 4>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세의 경우 대상지향보다 행위지향을 많이 사용하였고, 2세의 경우에는 대상과 행위의 발화수가 비슷하였다. 1, 2세 모두, 어머니들은 행위지향의 경우에는 행

<표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화용발화 유형의 차이검증

어머니 발화유형	1세 M(SD)	2세 M(SD)	t값	
행위지향	질문	6.81( 3.63)	7.41( 4.74)	-.40
	요구	23.00( 8.98)	20.70( 7.80)	.78
	묘사	6.06( 4.31)	6.70( 6.48)	-.33
	총	35.87(12.47)	34.82(12.75)	.23
대상지향	지시	2.68( 3.17)	2.47( 2.03)	.23
	질문	15.75( 9.05)	21.23(10.54)	-1.59
	명명	6.50( 4.50)	9.64( 8.25)	-1.36
	묘사	.56( .81)	1.70( 1.96)	-2.45
총	25.50( 9.89)	35.05(14.31)	-2.16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 화용발화 유형의 차이검증

아동 발화유형	1세 M(SD)	2세 M(SD)	t값	
행위지향	질문	.43( .89)	1.05( 1.08)	-1.78
	요구	3.50(3.65)	3.47( 3.42)	.02
	묘사	1.68(1.70)	6.64( 6.30)	-3.04*
	총	5.68(4.81)	11.17( 9.58)	-2.05*
대상지향	지시	.00( .00)	.00( .00)	-1.52
	질문	.87(1.45)	4.17( 4.12)	-3.02*
	명명	22.18(8.74)	24.94(11.26)	-.78
	묘사	.12( .34)	2.94( 3.15)	-3.55*
총	23.18(9.33)	32.35(11.32)	-2.52*	

\* $p<.05$

위요구, 대상지향의 경우에는 대상질문발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사용하는 행위지향 발화( $t=.23, p>.05$ )나 대상지향 발화( $t=-2.16, p>.05$ )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세 아동이나 2세 아동에게 어머니가 사용하는 화용 발화유형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들은 1세나 2세 모두 대상지향 발화를 행위지향발화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대상명명발화가 매우 빈번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화용발화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1세 아동보다 2세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행위지향발화( $t=-2.05, p<.05$ )와 대상지향발화( $t=-2.52, p<.05$ ) 모두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 아동들보다 2세 아동들이 행위묘사, 대상질문, 대상묘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명명과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의도에서 행위묘사, 대상질문이나 대상묘사, 행위묘사와 같은 좀더

복잡한 의사소통의도를 사용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화용발화유형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화용 발화 유형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의 발화빈도에 유의한 차이(행위지향 :  $t=-.12, p>.05$ , 대상지향 :  $t=-.65, p>.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

<표 5> 아동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화용 발화유형의 차이검증

어머니 발화유형	남아 M(SD)	여아 M(SD)	t값	
행위지향	질문	7.68( 3.13)	6.58( 5.02)	.74
	요구	.20.12( 6.04)	23.41( 9.97)	-1.13
	묘사	7.25( 6.95)	5.58( 3.60)	.87
	총	35.06(11.28)	35.58(13.77)	-.12
대상지향	지시	2.06( 1.84)	3.05( 3.15)	-1.09
	질문	18.18(10.05)	18.94(10.41)	-.21
	명명	7.12( 5.41)	9.05( 7.82)	-.82
	묘사	1.50( 2.06)	.82( .95)	1.22
총	28.87(12.16)	31.88(14.15)	-.65	

<표 6>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 화용발화 유형의 차이검증

아동 발화유형	남아 M(SD)	여아 M(SD)	t값	
행위지향	질문	.93( 1.18)	.58( .87)	.97
	요구	3.25( 3.75)	3.70( 3.31)	-.37
	묘사	4.25( 5.69)	4.23( 4.96)	.00
	총	8.43( 8.98)	8.58( 7.31)	-.05
대상지향	지시	.25( .77)	.05( .24)	.96
	질문	3.00( 4.24)	2.17( 2.72)	.66
	명명	23.93(10.38)	23.29(10.05)	.18
	묘사	1.37( 1.92)	1.76( 3.25)	-.41
총	28.56(10.50)	27.29(12.20)	.31	

는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행위지향발화와 대상지향발화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화용발화유형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화용 발화 유형에서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행위지향,  $t=-.05, p>.05$ , 대상지향 :  $t=.31, p>.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도 남아나 여아가 행위지향발화와 대상지향 발화를 비슷하게 사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사, 명사와 관련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발화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발화유형과 어머니의 발화유형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동사와 명사 발화, 행위지향발화는 아동의 발화유형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대상지향발화가 아동의 명사, 대상지향발화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어머니가 대상지향 발화를 많이 할수록 아동이 명사, 대상지향 발화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과 어머니의 화용 발화의 하위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어머니 언어유형과 아동 언어 유형의 상관관계분석

		아 동			
		동사	명사	행위지향	대상지향
어머니	동사	.14	-.09	.14	-.09
	명사	-.00	.14	.04	.18
	행위지향	.25	-.29	.30	-.21
	대상지향	.08	.49*	.09	.59*



<표 8> 어머니의 화용 발화유형과 아동의 화용 발화유형의 상관관계분석

	어		동				
	행위질문	행위요구	행위묘사	대상지시	대상질문	대상명명	대상묘사
행위질문	.49*	.07	.08	.23	.08	-.25	-.22
행위요구	-.00	-.01	-.15	-.03	-.17	-.29	-.21
행위묘사	.32	.27	.29	.34*	.10	-.27	-.12
어머니							
대상지시	.10	.04	.04	.14	.02	-.09	.04
대상질문	-.03	.00	.10	-.08	.08	.42*	.37*
대상명명	-.23	-.05	-.06	-.08	-.15	.22	.26
대상묘사	.22	.04	.16	.20	-.00	-.08	.03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행위질문과 아동의 행위질문 간에, 어머니의 행위묘사와 아동의 대상지시간에, 그리고 어머니의 대상질문과 아동의 대상명명, 대상묘사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발화유형과 아동의 발화유형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초기 언어 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모자가 사용하는 품사만을 비교하거나, 아동의 언어발달척도로 질문지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을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양육자와 아동의 실제 발화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중국 조선족 유아 1세 16명, 2세 17명의 총 33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동사와 명사의 품사습득뿐만 아니라 동사와 명사관련 화용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과 어머니가 놀이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자발발화를 수집하여 이들의 자발발화를 어휘론적 측면에서 동사와 명사로 분석하였고, 화용론적 측면에서 행위지향과 대상지향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지향은 다시 대상질문, 대상명명, 대상지시, 대상묘사로 분류하였고, 행위지향은 행위질문, 행위묘사, 행위요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동사와 명사 중심의 어휘론적 분석과 화용론적 분석을 통하여 1, 2세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과 아동의 언어발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과 어머니의 품사와 화용발화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품사사용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경

우, 1, 2세 모두에게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지만,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사용빈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의 경우에는 1, 2세 아동 모두 동사보다 명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고 동사사용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1세보다 2세 아동들이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보다 동사가 발달적으로 더 늦게 나타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1세 아동들보다 2세 아동들이 동사사용이 더 빈번한 것은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발화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명사와 동사를 유사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용발화 사용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는 1세와 2세 아동 모두에서 행위지향발화를 대상지향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용발화유형은 행위요구였고, 대상지향발화중에서는 대상질문 발화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그 외의 발화유형은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화용발화빈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연령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에 관계없이 화용발화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경우에는 행위지향보다 대상지향 발화를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발화유형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동들의 화용발화는 특히 대상명명발화가 매우 빈번하였고 행위지향발화중에는 행위요구 발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1세 아동들보다 2세 아동들이 행위지향발화와 대상지향발화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세 아동들보다 2세 아동들이 행위요사, 대상질문, 대상묘사발화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명명과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의도에서 대상묘사나 대상질문, 행위요사와 같은 좀더 복잡한 의사소통의도를 사용하는 화용론적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아동들의 연구에서 놀이상황에서 어머니들은 대상지향발화보다 행위지향발화를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결과(Choi, 2000)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행위지향 발화를 대상지향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였지만 아동들의 발화유형에서는 1세와 2세 모두 대상지향발화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발화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대상지향발화를 사용하면 아동들은 대체로 대상지향발화로 반응하게 된다. 이것은 아동의 대상지향발화에서 특히 대상명명 발화가 빈번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어머니가 행위지향 발화를 하였을 때 아동의 반응은 반드시 언어일 필요는 없다. 즉 어머니의 행위지향 발화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언어보다는 주로 행위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위지향 발화로 빈번하게 나타난 '요리해라', '전화해라', '아기 안아줘라', '아기 우유 먹여라' 등의 발화에 대해 아동들은 실제로 요리하기나 전화하기, 아기 안아주기, 아기 우유 먹이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반응하였고, 어떠한 발화로 반응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발화빈도만으로 어머니의 입력이 아동의 발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는 알아보기 힘들 수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동의 발화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피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아동과 어머니 모두 발화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아나 여아 모두 대상지향발화와 행위지향발화를 유사한 빈도로 사용하고, 어머니도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두 가지 유형의 발화를 유사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화용발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화용발화유형과 아동의 화용발화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행위질문과 아동의 행위질문 간에, 어머니의 대상질문과 아동의 대상명명 및 대상묘사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영향을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어머니의 발화와 아동의 발화유형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가 대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대상에 대한 묘사를 하거나 이름을 말할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행위질문이 아동의 행위질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본 연구의 어머니들이 행위발화를 대상지향발화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아동들은 대상지향발화를 행위지향발화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화빈도와는 달리 상관관계결과 어머니의 행위지향발화와 아동의 행위지향발화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므로 언어적 입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어머니의 행위지향발화가 단순히 아동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행

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 빈도만으로 언어적 입력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위험성을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언어적 입력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행동분석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중국조선족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한국어를 단일언어로 습득하는 아동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아동들의 한국어 발달과정이 한국어 단일언어 아동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족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한국어 사용양상이 한국어를 학습한 어머니들과 유사하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화용론적 분석을 위해 대상지향과 행위지향의 두 가지 발화로만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 행위 분류와 같은 보다 폭넓은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화용론적 분석을 실시하여 언어적 입력과 아동의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중·최인숙(1989). 유아발달심리.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재은(1984). 유아의 발달심리. 서울 : 창지사.
- 이승복·장유경(1999). 어휘획득 과정에서의 언어적 입력과 인지적 제약.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2, 49-87.
- 이귀옥·이혜련(2004). 중국 조선족아동의 초기 다국어 발화의 의미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4), 75-90.
- \_\_\_\_\_ (2005).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아동

- 의 초기 의미관계 발달과정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이중언어학*, 28.
- 장유경 · 이근영 · 곽금주 ·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227-240.
- 장유경 · 임현정 · 곽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2), 105-120.
- 최보가 외(2000). 영유아 발달. 서울 : 정림사.
- Anglin, J.(1993). Vocabulary development : A morphological analysi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8(10, Serial No. 238).
- Au, T. K., Dapretto, M., & Song, Y. K.(1994). "Input vs. constraints :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567-582.
- Barret, L., Harris, M., & Chasin, J.(1992). Early lexical development and maternal speech : A comparison of children's initial and subsequent uses of word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 21-40.
- Bates, E., Camaioni, L., & Volterra, V.(1975). The acquisition of performatives prior to speech. *Merrill-Palmar Quarterly*, 21(3), 205-226.
- Bowerman, M., & Choi, S.(1994).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determinants of spatial semantic development : A crosslinguistic study of English, Korean, and Dutch, Paper presented at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January.
- Caselli, M. C., Bates, E., Casadio, P., Fenson, J., Fenson, L., Samderl, L., & Weir, J.(1995). A crosslinguistic study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0, 159-199.
- Choi, S., & Gopnik, A.(1995). Early acquisition of verbs in Korean : a cross-linguistic study.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497-830.
- Choi, S.(2000).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36-96.
- Dore, J.(1978). Conditions for the acquisition of speech acts. In I. Markova (Ed.), *The Social Context of Language*. Chichester : John Wiley and Sons.
- Gender, D.(1982). Why nouns are learned before verbs :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Vol. 2 : *Language, thought, and culture*(301-34). Hillsdale, NJ : Earlbaum.
- Hof, E., & Naigles, L.(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Ninio, A., & Snow, C. E.(1996). *Pragmatic Development*. Colorado : Westview Press.
- Owens(1999). *Language disorders :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 Pine, J., Lieven, E., & Rowland, C.(1997). Stylistic variation at the "single-word" stage : Relations between maternal speech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vocabulary composition and usage. *Child Development*, 68, 807-819.
- Tardif, T., Shatz, M., & Naigles, L.(1997). Caregiver speech and children's use of nouns versus verbs : A comparison of English, Italian, and Mandarin.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535-566.
- Weizman, Z. O., & Snow, C. E.(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 Effects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3일 채택